

당을 통한 지배의 두 방식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과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의 구조적 유사성과 목적론적 차이*

김상범**·이형종***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명문화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등장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중국 시진핑 체제의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과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구조적 유사성과 목적론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일상화 개념, 찰스 암스트롱의 이념적 자기 충족 개념, 게디스·라이트·프란츠의 인격화 개념, 그리고 앤드류 네이션의 권위주의 회복력 개념을 결합하여 양국 당건설노선의 분기를 이론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 노선은 정치·사상·조직·기율(규율)·작풍(기풍) 건설이라는 구조와 최고지도자의 통치 정당성 강화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도화·법치화·반부패투쟁을 통한 당의 자기혁명을 지향하는 반면 북한은 제도건설과 반부패투쟁을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라는 사상의식 통제에 방점을 둔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당 건설이론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유일영도체제 공고화를 위해 북한식으로 변용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이 북중 당 대 당 외교 활성화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독과 대응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시진핑,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5-CDM-1240002).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명문화한 ‘새 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등장 배경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중엄치당(新时代全面从严治党)’과 비교함으로써 그 구조적 유사성과 목적론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의 당 건설 이론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제도화·법치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를 유일영도체계 공고화를 위해 북한식으로 변용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은 후계자로서의 그의 권력 기반이 김정일 시기 행해화되어 있던 당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당 대회는 단순한 정치 의례 행사가 아니라 권력 정당화, 정책 방향 설정, 당·국가관계 재편, 대남정책의 변화 등 정치적·제도적 함의를 내포하는 북한 최고의 권력기구이며, 최고지도자의 사상과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공식적·제도적 절차의 성격을 지닌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당 회의체를 당 규약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에 기반해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정치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제9차 당 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주요 논의 의제로 수령의 사상과 유일영도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¹⁾ 그에 따라 이번 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능이 사상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수단과 방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령도는 주체조선의 힘이며 승리이다 –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2025년 10월 9일;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펼친 성스러운 5년: 전당강화의 전성기,” 『로동신문』, 2025년 12월 18일.

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우리가 제9차 당 대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이하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이 사상이 천명했다고 밝힌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당 규약에 항구적인 당 건설현장으로 명문화했다는 사실이다.²⁾

북한은 제9차 당 대회에서 제8기 기간 동안 당, 국가기관 간부들의 뿌리 깊은 패배주의,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인위적인 난관’이 조성되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독창적인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으로 이를 극복, ‘당건설의 새시대, 전당 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놓았으며 이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³⁾ 그러나 이 노선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 이후 공식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과 구조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북한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등장 배경, 주요 내용 및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과의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당건설노선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함의와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2)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2026년 2월 22일: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아직 당 규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당 규약상 명문화되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당 규약상 명문화되었다고 북한이 공개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집중하고자 한다.

3)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본 연구는 첫째, 중국과 북한 모두 레닌주의에 기반한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모두 김 일성-김정일-김정은, 모택동·등소평-강택민·후진타오-시진핑으로 이어지는 3세대 지도자로서 당 건설이론을 전면 개정한 비교 가능한 사례라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정치 제도화 수준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 넷째, 북한이 이 노선을 김정은 위원장의 독창적인 이론으로 규정한 탓에 중국 종엄치당이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직접 인용·참조한 사례를 북한 문헌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학습의 증명’에서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한 확산 가능성 추정’, 즉 관찰된 유사성 패턴을 전제로 분석하였다.

현재 『로동신문』 외에는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 관련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이 이 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이론’에서 ‘당 건설현장’으로 정치적, 제도적 지위를 재개념화하며 체계화하고 있지만, 당 이론자인 근로자에서는 관련 논문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노선이 『로동신문』의 대중적 해설 단계를 지나 근로자의 이론적 정립 단계 직전에 위치해 있으며,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 노선에 주목한 선행연구도 드문 편이며,⁴⁾

4) 김상범, “김정은 시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체계화와 당 규약 명문화의 정치적 함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FES Brief 2026-10(2026),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ubview.do?enc=Zm5jdDF8QEB8JTJGbwWF0ZXJpYWw1MkZpZmVzJTJGMTk0MSUyRnZpZXcuZG8lM0ZwYWdlJTNEMSUyNmN0Z3JUeXBjJTNEM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b3JkJTNEJTl2>; 박영자, “북한의 9차 당대회 전략: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제218호(2025), <http://webzine.puac.go>.

북한 내부 정치의 관점에서 이 노선의 등장 배경·내용·의미 등 주로 ‘무엇(what)’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이를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향후 북중관계와 북한 체제의 중장기적 안정성과의 관련성, 즉 ‘왜(why)’, ‘어떻게(how)’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등장과 전개,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겠다. 이어 4장에서는 중국의 신시대 종업치당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구조적 유사성과 목적론적 차이를 규명하고, 이것이 향후 북중 간 당과 정부의 외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다. 5장은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더불어 북한 체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2. 이론적 논의: 카리스마의 일상화와 당 - 국가체제의 두 가지 경로

북한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과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은 표면적으로 동일한 구조(정치·사상·조직·기술·작풍건설)를 공유한 사회주의 국가 3세대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과제인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위한 개념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통적으로 지금

kr/tongil/sub.php?number=3877%3E.

까지의 사회주의는 ▲ 당의 자정 능력 부족, ▲ 간부들의 능력 부족, ▲ 사회 전반의 법·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무규율성, ▲ 고압적인 인민관 등으로 인해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회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식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인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삶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⁵⁾ 이에 양국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사회주의 현대화란 넓은 의미에서 ‘당·국가 관리체제와 관리 능력의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를 통해 인민의 주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공산주의로 가는 길’로, 좁은 의미에서는 ‘당이 지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가 협력하고, 대중이 참여해 법, 제도를 포함해 최고지도자의 영도의 연속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 발전 및 사회적 문제,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 거버넌스 완비’로 정의할 수 있다.⁶⁾ 북중 모두 기존 세대와 확연히 다른 당건설노선을 제시하는 이유는 당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권위를 만들기 위함이며, 이 목적은 최고지도자의 통치 정당성과 직결된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발전시켰던 것 못지않게 체제를 유지하고 미래를 구상·제시하는 현시대의 노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⁷⁾

5) 리페이린(李培林), 『인민중심의 새로운 발전 이념 고수』, 김선녀(金善女) 옮김(서울: 역락, 2022), 11.

6) 리페이린, 『인민중심의 새로운 발전 이념 고수』, 41.

7)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적권위는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자부심이다,” 『로동신문』, 2023년 7월 16일.

그러나 북한과 중국 모두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목적은 일치하지만 그 궁극적 지향점에서는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차이를 하나의 통일된 이론적 위계 속에서 규명하기 위해 막스 베버(Max Weber)의 카리스마 지배의 일상화 개념을 가장 근본적인 분석 층위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분기하는 두 경로인 인격화(personalization)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비교 권위주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베버는 카리스마적 지배가 지도자 개인의 비범한 자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극히 불안정한 지배유형으로서, 안정을 위해서는 ‘전통화’되거나 ‘합리화’되거나, 또는 양자가 결합된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⁸⁾ 이러한 일상화(the routinization of charisma)는 카리스마가 혈통을 통해 세습되어 전통적 지배로 진화하는 ‘세습 카리스마(hereditary charisma)’와 카리스마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가 점유했던 관직 자체에 귀속되어 합법적·관료제적 지배로 전화하는 ‘관직 카리스마(the charisma of the office)’ 경로로 나뉜다.⁹⁾ 이 분기는 본 연구가 북한과 중국의 당건설노선을 대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적 근거이다. 즉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계승은 베버가 말한 세습 카리스마 경로의 전형이며, 반면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 이후 걸어온 경로는 카리스마를 특정 혈통이 아니라 당이라는 관직·기구에 귀속시키는 관직 카리스마 경로에 해당한다.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은 세습 카리스마 경로를 택한 북

8)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246.

9)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249-252.

한이 대해 정당성의 위기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외부 준거로부터 절연된 자기 완결적 사상체계, 즉 이념적 자기 충족(ideological introversion)에서 찾았다.¹⁰⁾ 이는 최고 수준의 정치개입인 ‘사상’을 통해 세습 카리스마가 정당성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안정망을 의미한다. 북한이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천명’¹¹⁾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세습된 카리스마에 독자적 사상 및 당건설 이론 업적이라는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을 부여함으로써 세습 자체가 카리스마의 훼손이 아니라 그 심화·발전임을 논증하는 자기 충족적 서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상적 정당화가 낳은 구조적 결과는 바버라 게디스, 조지프 라이트, 에리카 프랜츠(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의 인격화(personalization) 개념¹²⁾과 이를 북한 사례에 직접 적용한 송원준과 조지프 라이트(Wonjun Song and Joseph Wright)의 인격화 지수(Personalism Index)를 통해 확인된다. 이들 연구는 북한이 장기간 존속하면서도 극도로 인격화된 독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김일성 사후에도 인격화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세습을 통해 강화·발전

10) Charles K. Armstrong, “Ideological Introversion and Regime Survival: North Korea’s ‘Our-Style’ Socialism,” in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ed. Martin K. Dimitrov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00-102.

11)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 『로동신문』, 2024년 6월 23일.

12)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되었음을 보여준다.¹³⁾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이 ▲ 2022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연설로 최초 제시, ▲ 동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건설노선으로 공식 채택, ▲ 2024년 강습회·일군회의 등을 통한 전당 차원의 집행·내면화, ▲ 2026년 2월 제9차 당 대회를 통한 당 규약 명문화라는 절차를 거친 것은 모든 것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유일관리제, 즉 인격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관직 카리스마 경로를 택한 중국의 경우, 앤드루 네이션(Andrew Nathan)의 권위주의 회복력(authoritarian resilience) 개념이 이 경로의 구체적 실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네이션은 승계 정치의 규범화(Norm-Bound Succession Politics), 정치 엘리트들의 능력주의 인사(Meritocracy Modifies Factionalism), 정권 내부 기관의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within the Regime), 정치참여 제도 확립(Input Institutions and Political Legitimacy)이라는 네 가지 제도화 지표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이라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이라는 기구 자체에 정당성을 귀속시켜 왔음을 강조하였다.¹⁴⁾ 장쩌민이 후계자를 직접 지명하지 않고 원로 정치의 개입 없이 승계가 이루어진 사례, ‘혁명화·연소화·지식화·전문화’라는 능력주의 기준에 따른 간부 승진은 카리스마가 당의 관직·절차에 귀속됨으로써 특정 개인의 성분과 분리되는 관직 카리스마화의 구체적 실현이라 할

13) Wonjun Song and Joseph Wright, “The North Korean Aut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8, no. 2 (2018): 157, 164-167.

14) Andrew J. Nathan,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14, no. 1 (2003): 7-16.

수 있다. 네이션이 이러한 이행을 ‘유토피아에서 발전으로’ 규정한 것은 베버의 틀에서 카리스마적 지배가 관료제적 지배로 일상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베버의 카리스마 일상화 개념을 두 체제의 근본적 분기를 설명하는 상위 이론으로 설정하고, 암스트롱의 이념적 자기 충족 개념을 북한의 세습 카리스마 경로가 정당성 위기 없이 지속되는 사상적 기제로, 게디스·라이트·프랜츠 및 송·라이트의 인격화 지수를 그 결과가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실증적 지표로, 네이션의 제도화 지표를 중국이 택한 관직 카리스마화의 구체적 실현 양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전개

1) 등장 및 전개 과정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일색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던 시기에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는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이 노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 노선은 2022년 10월 17일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뿌리인 ‘트.드(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96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 양성의 최고 교육기관인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행한 ‘새시대 우리 당 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기념 연설을 통해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노동당이 주로 조직, 사상, 영도

예술의 세 방면에 주력해 온 사실을 지적하고, 당 건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이라는 새로운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 5대 건설방향을 당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규율에서 엄격하며 작풍에서 건전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며,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교훈과 당내 형편에 비추어 매우 긴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¹⁵⁾ 북한은 안정된 집이 튼튼한 기둥을 필요로 하듯 당 건설을 위해서는 5대 분야 건설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당 중앙의 혁명사상’의 일색화를 통한 대중 조직 동원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12.26.~12.31.)에서 당의 통치 능력 강화를 위해 이 노선을 공식적인 ‘당의 건설노선’으로 채택하고 전 당 조직을 상대로 각 분야 건설을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각 분야 건설노력은 강습회, 일군대회, 사상교양사업 등을 통해 고위 간부에서부터 기층 조직 일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예컨대 북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 규률조사부일군, 당간부양성기관 일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율제도 강화를 위한 ‘당규률조사부문 일군강습회’를 최초 개최하였다.¹⁶⁾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5월 21일 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 간

15)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8일.

16) “제1차 당규률조사부문일군강습회 진행,” 『로동신문』, 2024년 2월 1일.

부들이 지녀야 할 3대 필수적 기질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1세대 혁명가들의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정치건설 분야의 필수요건으로 제기하였다.¹⁷⁾ 김정은 위원장이 새 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제기하며 유일영도체계를 확립·강화를 당 건설 상 근본문제로 제기하고¹⁸⁾ 북한이 당의 창당 이념과 정신의 진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의¹⁹⁾한 것은, 본질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직건설’을 위한 일군회의도 최초로 개최되었다. 북한은 2024년 10월 2일(보도일 기준) 조직 건설 강화를 위한 간부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차 전국간부사업부문일군회의’를 개최하고 간부심 의 체계, 간부심사인준 체계, 후비간부 육성 체계를 세워 간부사업 전 공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⁰⁾ 이 노선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중앙당뿐 아니라 지방 당 차원, 예를 들어 지역 군 당 학교 당조직 및 분초급당 차원에서 일별, 주별, 월별로 사상교양사업 계획이 수립·전개되었다.²¹⁾

17) “주체혁명위업의 줄기찬 계승발전을 담보하는 새시대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2일.

18)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8일.

19) “우리 당의 창당리념과 정신의 진수,” 『로동신문』, 2024년 11월 9일.

20) “제1차 전국간부사업부문일군회의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2일.

21)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로동신문』, 2024년 11월 13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2026년 2월 제9차 당 대회를 통해 당 규약을 개정하고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명문화하였다. 당 규약에서는 이 노선을 ‘사상리론적지침으로 하여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입장과 의지를 담아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을 항구적인 당건설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내용, 그리고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당중앙지도기관들의 권능과 사업체제를 명백히 규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었다.²²⁾ 북한은 이 노선이 김정일의 혁명사상에서 나왔음을 밝히며, ▲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이정표, ▲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핵으로 하는 정치 풍토와 조직 사상적 통일의 강화, ▲ 규율과 작풍에서 확립된 혁명적 당 기강, ▲ 비상히 강화된 당의 영도력을 성과로 제시하였다.²³⁾

북한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첫째, 당과 수령에 절대적 충성심을 가진 세대가 소멸하는 상황에서 유무형의 혁명자산을 이론화·제도화·교육화하지 않으면 계승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절박감이다. 김일성 고급당학교의 당 중앙 간부학교로의 재건, 당성·혁명성·인민성을 3대 필수기질로 강조하는 것은 간접적 체험과 학습을 통해 체제 정당성과 충성심을 이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둘째, 핵심당원의 노쇠화와 그로 인한 관료주의·소극주의를 충직한 젊은 세대 간부로 대체하려는 명분과 실리 추구이다.²⁴⁾ 이는 국가로

22)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23)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서,”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부터 생존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소위 글로만 혁명을 배운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신진 간부 진출(혹은 교체)을 사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셋째,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식적 구조 마련이다. 북한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 세도·관료주의, 허위 보고, 주관과 독단 등 당 조직 전반에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²⁵⁾ 북한은 간부들의 사업 태도와 대인민관, 무능과 부패, 반·비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충실성 부족 등을 간부들의 사상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규율건설 및 작풍건설을 독자적인 두 축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넷째, 유일적 영도체계의 재확립 및 강화이다. 이 노선의 본질은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그에 기반한 유일적 영도체계의 심화·발전이다. 또한 새시대에 맞는 사상과 당-국가 회의체를 통해 복원된 조직체계를 뒷받침하고, 권력 공고화 단계를 지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사상과 제도 차원에서 항구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즉,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의 실천강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수령들의 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자신의 새로운 혁명사상 제시를 통해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며 절대적 권위주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²⁶⁾

24)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자: 당일군의 수준이자 당사업에서의 실적이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7일.

25) “참된 혁명전사의 3대필수적기질(1): 당성,” 『로동신문』, 2024년 6월 3일; “참된 혁명전사의 3대필수적기질(2): 혁명성,” 『로동신문』, 2024년 6월 5일; “참된 혁명전사의 3대필수적기질(3): 인민성,” 『로동신문』, 2024년 6월 8일.

2) 주요 내용 및 특징

북한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스스로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만년지계의 당건설강령’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⁷⁾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최초로 제시한 지 5개월 뒤인 2023년 3월부터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의 순으로 인민들에게 소개·설명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정치건설을 ‘당을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으로,²⁸⁾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인 정치풍토를 굳건히 다지고 령도적정치조직다운 체모와 위신을 갖추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건설은 ‘조직건설·사상건설 등 다른 당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규제하는 필수 요소로서 항상 중시·강화’되어야 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 심화, 각급 당 위원회의 최고지도기관·정치적참모부로서의 기능 수행, 당원들의 정치의식 제고, 령도방법의 부단한 발전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선행한 당건설리론들에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 데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자아 비판하며, ‘자신들의 정치건설리론이 수령중심론에 기초해 완벽한 해답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이는 북한이 베버가 말한 ‘세습 카리스마’

26)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당건설의 5대 노선.”

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건설의 진로따라 우리당 강화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3년 10월 17일.

28)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정치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5월 10일.

29)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우리당 정치건설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로동신문』, 2023년 6월 10일.

경로, 즉 카리스마가 제도 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 확립, 당·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 일군과 당원의 사상의식 강화, 인민들에 대한 사업·지도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당이 정치영도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 회의체의 정상적 운영이 중요하며, 각급 당위원회 및 당원들의 정치수준 및 역할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건설을 ‘사상사업을 당 사업의 중핵 중의 중핵’으로 규정하고, ‘당을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 ‘전당을 당 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적 순결체로 만드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⁰⁾ 북한은 이를 위해 전당의 사업체계와 선전선동 역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당 중앙이 제시한 사상사업을 무조건 접수·결사관철하며 모든 문제를 당 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유일관리제를 강조하고 있다.³¹⁾ 사상건설은 암스트롱이 지적한 이념적 자기 충족의 기제가 사상사업체계라는 구체적 제도형태로 발현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조직건설을 ‘당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사업’³²⁾으로,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그 유일적 영도 아래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적 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만

30)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사상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7월 19일.

31)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사상건설의 본질”.

32)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조직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6월 13일.

드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³³⁾. 북한은 조직건설을 위해 당규약 기구사업의 완비, 이중규율 불히, 당 회의의 당 규약 준수 및 당원협회의 정상적 개최를 강조하고 있다.³⁴⁾ 다만 북한의 조직건설은 네이선이 제시한 기관 분화·기능적 전문화와는 방향을 달리하며, 관직 카리스마가 아닌 세습 카리스마를 뒷받침하는 조직 원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층당 조직을 당중앙의 정책적 과업을 직접 관철하는 기본전투단위로 강조하고 있으며,³⁵⁾ 특히 조직건설은 사상건설·규율건설과 불가피하게 중첩되는데 이는 기층조직 및 대중과의 사업에서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규율건설을 '정확하고 강력한 규율검사체계와 질서를 수립·발전시켜 규율로서 전당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하며 당 안에 기강을 확고히 세우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⁶⁾ 북한은 규율 건설의 목적을 '간부와 당원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들로 만들고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위원회들과 부서, 일군들의 직능을 명백히 하고 철저히 직능대로 사업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율제도 확립을 선차적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³⁷⁾ 눈여겨볼 대목은 북

33)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조직건설의 선행공정," 『로동신문』, 2023년 6월 17일.

34)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당생활의 정규화, 규범화," 『로동신문』, 2023년 7월 2일.

35)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당세포와 초급당강화는 전당강화의 중요고리," 『로동신문』, 2023년 7월 5일.

36)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규율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10월 15일.

37)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규율건설의 중요고리," 『로동신문』, 2023년 10월 26일.

한은 규율건설이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작풍건설의 성과를 담보한다면서, 이것이 당원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규율건설의 본질이 ‘엄격한 규율제도로 당을 관리·강화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인민을 무시하고 세도를 부리는 반인민적 행위 근절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³⁸⁾ 그러나 북한의 규율건설이 중국의 법적·행정적 감찰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자각성과 충실성 교육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은 개인적 충성 여부가 통제의 근간이 되는 ‘정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격화 지수의 실증적 증거이다.

북한은 작풍건설을 ‘당의 권위와 영상, 존립과 직결된 당 건설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인 당풍을 고수하고 건전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공고히 해 나가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지도 작풍, 결백한 정치 풍토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⁹⁾ 작풍건설에서는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자력갱생·견인불발로 완벽하게 집행하며,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를 배격하고 군중과의 혈연적 유대를 다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작풍건설은 네이션이 말한 거버넌스 성과를 통한 정당성 축적 경로와는 반대의 논리 위에 있으며, 간부와 일군들의 인민대중제

38)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규율건설의 중요고리.”

39)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작풍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11월 3일.

40)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작풍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1),” 『로동신문』, 2023년 11월 7일.

일주의에 기초한 대인민관 및 사업태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선언은 실제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5년 1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회의를 개최하고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당내 규율 위반, 집단적 부정행위를 특대사건(반당적, 반인민적 범죄)으로 규정하여 법·제도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이를 규율·작풍 건설 상의 문제이자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저해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규율건설 강화를 통한 전당적 교육·지도·검열 강화를 강조하였다.⁴¹⁾ 또한 2026년 7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던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박희철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이를 ‘당의 규율건설로선에 도전한 정치적 범죄’로 규정, 당 지도기관에서 소환·처벌하였다.⁴²⁾

이처럼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당규율 조사부문 강습, 간부사업 부문회의, 비서국 회의 등을 통한 지도·검열·총화 과정에서 실제 숙청과 간부 교체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작풍과 규률준수기풍에는 개선이 없다”라고 평가⁴³⁾한 데서 알 수 있듯, 현실적인 평가에 기반한 제도적·인식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 노선이 핵심 엘리트 및 간부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충성심 유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

4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비서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5년 1월 29일; “사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로동신문』, 2025년 2월 5일.

42) “강건한 규률과 엄격한 법적기강으로 혁명의 승리적진군을 담보하자: 당, 정, 군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7월 11일.

4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비서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본 5대 당건설노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정의 및 핵심 내용

분야	의미	정의	핵심 내용
정치건설	선도적 역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영도조직으로서 권위와 위신을 세우는 사업	기존 이론에서 미비했던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명시
조직건설	조직적 전일체	전당을 수령의 영도 아래 한결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 만드는 사업	▲당 규약과 기구사업의 완비, ▲기층 당 조직(세포)의 역할 강화, ▲민심을 어지럽히는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조
사상건설	중핵 중의 중핵	전당을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	당 중앙의 사상을 무조건 접수하고 보고하는 유일관리제 수립 강조
규율건설	성과 담보의 열쇠	강력한 규율검사체계를 통해 당 안에 기강을 세우는 사업	정치·조직·사상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을 무시하고 세도를 부리는 반인민적 행위 근절 강조
작풍건설	당의 영상과 존립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건전하고 도덕적인 풍모를 배양하는 사업	특수화, 본위주의, 허풍을 배격하고 군중과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여 당의 권위를 지키는 것

자료: 김상범, “김정은 시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체계화와 당 규약 명문화의 정치적 함의”.

4.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과의 비교

1) 주요 내용 및 특징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이 당을 관리하고(党要管党),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다스린다(全面从严治党)’는 원칙을 제시하며 신시대 당건설노선을 강조하였다.⁴⁴⁾ 종엄치당은 201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제4차 전체회의 이후 공식적으로 국가전략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제도의 우리 속에 가두어야 한다(把权力关进制度的笼子里)’고 강조하면서 당의 자기 정화·자기 완비·자기 혁신·자기 향상 능력 제고를 위한 당의 ‘자기 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⁴⁵⁾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 이후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新时代全面从严治党)’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⁴⁶⁾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핵심으로 하는 ‘위대한 4가지’와 함께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어야 한다’, ‘국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

44) “习近平在十八届中央纪委二次全会上发表重要讲话,”『人民网』, 2013年 1月 22日, <https://cpc.people.com.cn/pinglun/n/2013/0122/c64094-20289660.html>.

45)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报告,”『共产党员网』, 2017年 10月 18日, <https://www.12371.cn/2017/10/27/ARTI1509103656574313.shtml>.

46)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报告”.

고, 당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治国必先治党, 治党务必从严)⁴⁷⁾를 강조했다. 47) 시진핑 시대 중국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 당 건설 이론에 토대해 사상으로 당을 건설하고 제도로써 당을 다스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당 건설이론 체계를 구축하였다.⁴⁸⁾ 이는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의 중요 과제가 당이 전체 국면을 총괄·제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고 당의 집정 방식 개선을 통해 집정 지위를 공고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⁴⁹⁾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구체화된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은 정치건설을 중심으로 사상건설·조직건설·작풍건설·기율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제도건설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반부패투쟁 심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기율건설, 제도건설 및 반부패투쟁이라는 ‘6대 당건설노선’의 구조를 가지며, 특히 제도건설은 독립된 분야로 분리되어 다른 모든 건설 과정에 관여·관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은 ‘쇠를 두드리려면 먼저 자신이 단단해야 한다(打铁必须自身硬)’는 원리에서 출발하며,⁵¹⁾ 핵심 목표는 모든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천 속에서 ‘당

47) 왕징칭(王京清),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최경화(崔京花) 옮김, 우진훈 감수(서울: 역락, 2022), 10.

48) 왕징칭,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26-27.

49) 왕징칭,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39.

50) 张克成, 任艺璇, “新时代全面从严治党理论创新, 实践价值与世界意义,” 『理论探讨』, 第3期(2022), 20-27.

51) “治国必先治党, 治党务必从严,” 『共产党员网』, 2016年 7月 3日, <https://news.12371.cn/2016/07/03/ARTI1467518247219744.shtml>.

의 핵심적 영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다. 2016년 10월 당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전체 핵심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시진핑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두 가지 수호 방향, 즉 시진핑 총서기와 당 전체의 핵심 지위 수호,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 수호를 제시하였다.⁵²⁾ 시진핑 주석은 당 내부 문제들을 당 건설이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하고, 당 건설의 최종 목표를 북한과 같은 유일영도체제가 아닌 당의 '자기 혁명'으로 설정하였다.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의 6대 당건설노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³⁾ 먼저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에서는 정치건설이 우선시되며, 조직건설은 간부혁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작풍건설은 인민대중이 공산당을 판단·인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관찰 포인트로 위민(爲民)을 핵심 업무로 하며, 기율건설은 당의 영도와 법치 간의 상호관계로서,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근본적 요구에 따라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어떤 조직과 개인도 특례를 허락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건설은 신앙·이념·당성교육을 통해 당의 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며,⁵⁴⁾ 제도건설은 권력의 합리적·효율적 배치와 규범성을 보증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확히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고, 법·제도를 통한 반부패투쟁 심화를 주요 활동으로 한다.

2013년 국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제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인민대중은

52) 왕징칭,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67.

53) 왕징칭,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11-38.

54) 杨凤城, “历史视阈中的新时代全面从严治党之思想建设,”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2018), 9-10.

부패를 극도로 혐오하고 부패는 우리 당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강조하였다.⁵⁵⁾ 2018년 기준 중국인들이 '반부패의 지속적 심화'를 중요한 사건으로 지목했을 정도로 부패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다.

중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국가감찰체제의 수립, 2018년 수정된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등을 통해 반부패운동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⁵⁶⁾ 시진핑 주석이 제19차 대회에서 반부패 투쟁이 '압도적 승리 획득(取得壓倒性勝利)'으로 변화되었다고 강조한 것은 그가 당권과 군권을 확고히 장악했다는 대내외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은 반부패운동, 당·국가 운영 체계의 강화, 시진핑 주석의 영도능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건설노선이자, 시진핑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정치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2)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중국은 6개 당건설노선으로, 북한은 5개 당건설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의 명칭이 동일하며, 북한의 작풍건설은 중국의 기풍건설에, 규율건설은 기율건설에 대비된다.⁵⁷⁾ 그리고 중국의 경우 제도건설과 반부패투쟁을 당건설노선에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의 당건설노선에는 포

55) 전가림, “시진핑 집권기 중국 반부패운동 특징 분석,” 『중국과 중국학』 제41호 (2020), 76.

56) 전가림, “시진핑 집권기 중국 반부패운동 특징 분석,” 77-79.

57) 본고에서는 북한의 규율(規律/규률)건설과 중국의 기율(紀律)건설을 비교와 대응의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두 한자어가 원래 다른 개념, 계열(규율=규범/질서·기율=조직 규율·계율)에서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함하고 있지 않다.

먼저 양 노선의 공통점은 목표가 최고지도자의 영도체계 강화 및 사회주의 현대화를 통한 통치의 안정성 확보라는 데 있다. 양 노선은 ▲당의 영도 수준 및 당·국가 운영 능력의 배양, ▲부정부패 등 체제 위협 요소 대응력 제고, ▲당의 자체 자정 능력을 통해 인민의 정치적·물질적 요구를 보장함으로써 정당성을 재갱신할 수 있는 사상과 제도를 결합하여 완전한 정치적 장악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의 성격을 지닌다. 양국 모두 정치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하고, 사상 건설·조직건설·기율(규율)건설·작풍(기풍)건설을 통해 당의 통치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중국이 ‘당이 스스로 혁명한다(党的自我革命)’는 개념으로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면, 북한도 ‘당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한다’는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양국 모두 당 내부의 부패, 관료주의, 인민과의 괴리를 체제 유지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간부 통제와 법·제도 및 규율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즉, 양 노선은 기본 구조와 명칭까지 상당 부분 유사하며, 표면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당건설노선을 수용·변용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또한 양 노선은 사회주의 및 당 건설 과정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지도자에게 더 많은 사상적·제도적 권한과 정치·도덕적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양 지도자 모두 선대 지도자에 비해 사상적·제도적

58) “习近平：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共产党员网』, 2021年 7月 1日, <https://www.12371.cn/2021/07/01/ARTI1625122624003841.shtml>; “우리 당 정치건설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로동신문』, 2023년 6월 10일.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이론의 심화·발전과 법·제도에 근거한 제도적 권위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양 노선 간에는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 신시대 전면적 중엄치당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즉 당이 국가의 모든 것을 이끈다는 정당 중심의 논리인 반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본질적으로 김정은 혁명사상의 전당 내 일색화, 즉 당 위에 존재하는 수령으로서의 사상적 권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치건설 분야에서도 중국은 당 중앙의 권위 수호뿐 아니라 법치와 제도 운영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의 정치건설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이 궁극적 목표이다. 사상건설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이론교육과 정책 학습을 중시하는 반면, 북한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에 의한 전당·전사회 일색화를 목표로 한다. 즉 중국은 당의 이론적 통일을,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규율(기율)건설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과 당규에 따른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반부패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한의 규율건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위한 정치·사상의식 교육·교양과 통제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기율건설이 법치의 강화라면, 북한의 규율건설은 유일영도체계의 재확립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당의 유능함을 입증하려 하는 반면, 북한은 간부들의 헌신과 도덕적 풍모, 수령의 대인민관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수령의 무오류성을 증명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크다. 중국은

〈표 2〉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과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비교

분석 지표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
핵심 키워드	집중통일영도, 반부패, 법치	유일영도체계, 김정은의 혁명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
지도자 위상	당의 핵심	절대적, 인민적 수령
통제방식	법적·행정적 감찰 시스템 (국가감찰위)	정치적·조직적 규율 확립 (당중앙검사위)
대중 전략	유능한 거버넌스의 성과 창출	인민적 작풍 개선과 충성심 유도
궁극적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와 당의 영구 집권	사회주의 현대화와 수령의 영구적, 절대적 영도 보장, 완성

자료: 『로동신문』 각 호를 참고해 저자 작성.

당의 결정을 국가 법령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관료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시진핑 주석의 종업치당이 거대 관료 정당의 현대적 관리 모델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유일지배체제 고도화의 시스템 모델이다. 북한이 중국 사례를 참고하여 규율과 작풍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본질은 중국식 시스템보다는 북한 특유의 수령 절대주의 강화에 있다. 북한은 이 노선을 당 규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능을 위한 ‘항구적인 시스템’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중국과 달리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집권 기반을 위한 ‘제도화’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제도건설과 반부패투쟁을 당건설노선의 한 축으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간부와 조직사업의 부패를 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다른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반부패

법(2019),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허풍방지법(2021~2022) 등 반부패투쟁 관련 법제를 제·개정해 왔으나, 부패 문제의 근본 원인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 부족, 즉 사상의식 이완으로 지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중국에 비해 제도화·법치보다는 사상의식 교양·강화를 더욱 중요시하며, 규율 위반·특권행위·관료주의·세도행위 근절을 제도 건설과 반부패 투쟁이 아니라 정치·사상·규율건설에 포괄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종합해 보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구조적으로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사상·조직·기풍(작풍)·기율(규율)이라는 기본 틀이 동일하며, 당의 장기 집권과 통치능력 강화를 추구하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제도화·법치화·반부패를 중심으로 당의 ‘자기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혁명사상 일색화와 유일영도 체계의 공고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제도화와 법치보다 정치·사상의식 통제와 강화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중국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의 단순한 수용·모방이 아니라, 이를 북한 체제에 맞게 재구성한 ‘유일영도체계 강화를 위한 북한식 종엄치당’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양 노선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북한이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을 그들의 현실에 맞게 변

59)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 해설: 규율건설의 본질.”

용·수용한 것을 당과 국가에 대한 통치기술 및 능력 강화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26년 2월 북한의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축전을 통해 “김정은총비서의 굳건한 령도 밑에 조선로동당이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구현하고 사회주의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오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 및 국가관리 경험에 대한 교류를 심화시킬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⁶⁰⁾

더 흥미로운 것은 2026년 6월 9일 시진핑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이 최초로 제기된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로동신문』은 두 지도자가 당 중앙간부학교의 ‘당 대외정책’ 관련 강의를 함께 참관하고, 후비간부양성체제와 교육체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으며, 북중 두 당 사이의 당건설경험 교환과 협조 확대에 대한 공동의 노력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보도했다.⁶¹⁾

이러한 양국 지도자의 외교행태는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중국은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거둔 것을 자신들의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을 북한식으로 변용·수용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체제가 이 노선을 통해 체제 내 구력과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당 및 국가관리 경험 교류 심화 의지 표명은 이 노선이 북중 관계의 실리외교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0)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26년 2월 20일.

6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핑동지와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시고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6년 6월 10일.

둘째, 중국의 제9차 당 대회 축전 송부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간부학교 공동 참관은 사회주의 국가 간 실리적 측면에서 강한 이념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당 건설 사상과 노선에 집중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상이 북한에 의해 수용·변용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국 관계가 전통적 혈맹 프레임에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관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당 건설노선의 유사성은 북중 간 당 대 당 외교를 활성화시킬 명분으로 충분하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의 정치국 위원 승진 역시 이러한 방향의 인사 신호이자, 다극체제 질서 속에서 북한을 중요한 한 축으로 상정하고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당 대 당 외교를 활성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로 해석된다.

셋째,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이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의 북한적 변용이라는 점은 ‘완전한 종속은 아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변용은 창조적 적용이며, 중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기 방식대로 고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에게도 북한이 당건설노선 및 경험과 관련해 중국에 종속되지 않고 여전히 백두혈통 및 수령론 등 독자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양국 간 이념적 유대성과 실리 외교 강화 움직임은 대미·대남 전략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전략적 갈등 및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설정은 북한에게 경제난 돌파와 외부 압박에 대한 완충 공간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양국의 사회주의 이념적 동질성 강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이념을 재형성·강화시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상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보인다. 종합하면, ‘수용하면서도 변용했다’는 것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제도 자체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통치의 최종 목표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며,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이념적 유대성을 활용해 실리를 도모하면서도 완전한 종속을 피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당규약에 명문화한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등장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과 비교함으로써 구조적 유사성과 목적론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의 당 건설이론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독특한 정치제도인 수령제에 맞게 제도화·법치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유일영도체계 공고화를 위해 변용하였음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2022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문제의식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22년 12월 공식 채택, 2023~2024년 강습회·일군회의를 통한 전당적 내면화, 2026년 2월 당규약 명문화에 이르는 절차를 거쳐 항구적인 당건설현장으로 격상되었다. 이 노선의 본질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이 천명한 실천강령으로서, 5개 분야 건설을 통해 유일적 영도체계를 사상적·제도적으로 공고화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정치·사상건설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명시적 실현 목표로 내세운 것은 선행 당 건설이론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이 노선이 표면적으로는 당 건설 일반이론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령 개인에게 정당성을

귀속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과의 비교에서 양 노선은 정치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하고 사상·조직·규율(기율)·작풍(기풍) 건설을 통해 통치능력을 제고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명칭과 세부 개념 역시 상당 부분 조응한다. 그러나 목적론적 차원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제도건설과 반부패투쟁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법치와 관료제적 제도화를 통해 당의 ‘자기혁명’을 완성하려 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정치·사상·규율건설에 포괄시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라는 사상의식 통제로 수렴시켰다. 즉 중국의 종업치당이 관직 카리스마에 기반한 거대 관료정당의 현대적 관리 모델이라면, 북한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세습 카리스마에 기반한 유일지배체제의 고도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노선의 유사성은 북중 간 당과 정부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6년 2월 중국공산당의 축전과 같은 해 6월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간부학교 참관은 양국이 당건설 경험의 유사성을 매개로 실리적 차원의 당 대 당 교류를 심화시킬 유인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제한된 공개 사료에 기반한 잠정적 추론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 노선을 ‘수용하면서도 변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북한이 중국과의 이념적 유대를 실리 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하면서도 백두혈통 및 수령론에 기초한 독자적 정통성을 대내외에 유지함으로써 완전한 종속을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이 노선이 북한 체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은 이중적이다. 단기·중기적으로는 암스트롱이 말한 이념적 자기 충족 기제가 당규약 명문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되면서 세습 카리스마에 독

자적 사상·이론 업적이라는 정당성의 원천이 추가되어 정치적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인격화 지수의 상승 추세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네이션이 강조한 제도화 지표, 즉 규범화된 승계, 능력주의 인사, 기관 분화가 부재한 채 정당성이 전적으로 수령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는 베버가 지적했듯 카리스마 보유자의 교체·소멸 국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후계 문제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노선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만년대계로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 지속 가능성이 다음 세습과의 관련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 노선은 김정은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체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나, 제도가 아닌 인물에 정당성을 결박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 체제 존속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당건설노선이 향후 중국과의 유사한 조건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내놓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으며, 이는 당건설노선을 국내외 조건 속에서 발전해 가는 역동적인 정책으로 그려내는 데 중요한 후속 과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이 중국의 신시대 전면적 종업치당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유일영도체계 공고화라는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북한식 종업치당’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 노선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정당성을 사상적·제도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단기적 체제 결속에는 기여하겠지만, 제도화와 법치보다 사상의식 통제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장기적 체제 안정성의 관건은 결국 승계의 제도화 및 안정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로동신문』을 통해 제시되

는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에 대한 단편적 해설을 종합·분석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전면적 종엄치당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 노선이 실제로 강습회·일군회의 등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지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 투고: 2026.06.30. / 수정: 2026.08.05. / 채택: 2026.08.07.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기타 자료

“강건한 규률과 엄격한 법적기강으로 혁명의 승리적진군을 담보하자: 당, 정, 군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7월 11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건설의 진로따라 우리당 강화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3년 10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시고 기념식수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6년 6월 10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적권위는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자부심이다,” 『로동신문』, 2023년 7월 16일.

“당의 사상과 의도를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자: 당일군의 수준이자 당사업에서의 실적이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7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的领导은 주체조선의 힘이며 승리이다 - 조선로동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2025년 10월 9일.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령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년 2월 26일.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로동신문』, 2024년 11월 13일.

“사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로동신문』, 2025년 2월 5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규률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10월 15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규률건설의 중요고리,” 『로동신문』, 2023년 10월 26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당 생활의 정규화, 규범화,” 『로동신문』, 2023년 7월 2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당 세포와 초급당강화는 전당강화의 중요고리,” 『로동신문』, 2023년 7월 5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사상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7월 19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우리당 정치건설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로동신문』, 2023년 6월 10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작 품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1),” 『로동신문』, 2023년 11월 7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작 품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11월 3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정치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5월 10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조직건설의 본질,” 『로동신문』, 2023년 6월 13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해설: 조직건설의 선행공정,” 『로동신문』, 2023년 6월 17일.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 『로동신문』, 2024년 6월 23일.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펼친 성스러운 5년: 전당강화의 전성기,” 『로동신문』, 2025년 12월 18일.

“제1차 당규률조사부문일군강습회 진행,” 『로동신문』, 2024년 2월 1일.

“제1차 전국간부사업부문일군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참가자들에게 강력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2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2026년 2월 22일: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로동신문』, 2026년 2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비서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5년 1월 29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서,” 『로동신문』, 2026년 2월 23일.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8일.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8일.

“주체혁명위업의 줄기찬 계승발전을 담보하는 새시대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4년 5월 22일.

“참된 혁명전사의 3대필수적기질(1): 당성,” 『로동신문』, 2024년 6월 3일.

“참된 혁명전사의 3대필수적기질(2): 혁명성,” 『로동신문』, 2024년 6월 5일.

“참된 혁명전사의 3대필수적기질(3): 인민성,” 『로동신문』, 2024년 6월 8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리페이린(李培林). 『인민중심의 새로운 발전 이념 고수』. 김선녀(金善女) 옮김. 서울: 역락, 2022.

왕징청(王京淸). 『새롭고 위대한 신시대 당 건설 프로젝트 심층 추진』. 최경화(崔京花) 옮김. 우진훈 감수. 서울: 역락, 2022.

2) 논문

전가림. “시진핑 집권기 중국 반부패운동 특징 분석.” 『중국과 중국학』 제41권(2020), 76-102. <https://doi.org/10.17935/Chinan.2020.41..75>.

3) 기타 자료

김상범. “김정은 시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체계화와 당 규약 명문화의 정치적 함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FES Brief 2026-10, 2026.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ubview.do?enc=Zm5jdDF8QEB8JTJGbwF0ZXJpYWwlmkZpZmVzJTJGMTk0MSUyRnZpZXcuZG8lM0ZwYWdlJTNEMSUyNmN0Z3JUeXBkMTNEM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b3JkJTNEJTl2>.

박영자. “북한의 9차 당대회 전략: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제218호(2025). <http://webzine.puac.go.kr/tongil/sub.php?number=3877>.

3. 국외 자료

1) 단행본

Armstrong, Charles K. “Ideological Introversion and Regime Survival: North Korea’s ‘Our-Style’ Socialism.” In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in Asia and Europe*, edited by Martin K. Dimitrov, 99-1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Geddes, Barbara,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2) 논문

Nathan, Andrew J.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14, no. 1 (2003): 6-17. <https://doi.org/10.1353/jod.2003.0019>.

Song, Wonjun, and Joseph Wright. "The North Korean Autocra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8, no. 2 (2018): 157-174. <https://doi.org/10.1017/jea.2018.8>.

张克成·任艺璇, “新时代全面从严治党的理论创新, 实践价值与世界意义.” 『理论探讨』第3期(2022): 20-27. <https://www.cnndoi.org/Resolution/Handler?doi=10.16354/j.cnki.23-1013/d.2022.03.008>.

杨凤城, “历史视阈中的新时代全面从严治党之思想建设.”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3期(2018): 8-14. <https://www.cnndoi.org/Resolution/Handler?doi=10.16382/j.cnki.1000-5579.2018.03.002>.

3) 기타 자료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报告.” 『共产党员网』. 2017年 10月 18日. <https://www.12371.cn/2017/10/27/ARTI1509103656574313.shtml>.

“习近平: 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共产党员网』. 2021年 7月 1日. <https://www.12371.cn/2021/07/01/ARTI1625122624003841.shtml>.

“习近平在十八届中央纪委二次全会上发表重要讲话.” 『人民网』. 2013年 1月 22日. <https://cpc.people.com.cn/pinglun/n/2013/0122/c64094-20289660.html>.

“治国必先治党, 治党务必从严.” 『共产党员网』. 2016년 7월 3일. <https://news.12371.cn/2016/07/03/ARTI1467518247219744.shtml>.

Two Modes of Party-Based Rule

Structural Convergence and Teleological Divergence between North Korea's New Era Five-Point Party Building Line and China's Comprehensive and Strict Governance over the Party for a New Era

Kim, Sangbum (Kyungnam University) ·

Lee, Hyungjo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North Korea's 'New Era Five-Point Party Building Line,' codified in the party rules at the 9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compares it with Xi Jinping's 'Comprehensive and Strict Governance over the Party for a New Era' in China. Employing Max Weber's concept of the routinization of charisma as an overarching framework, the study integrates Charles Armstrong's notion of ideological introversion and the personalization index developed by Geddes, Wright, and Frantz to explain North Korea's hereditary-charisma trajectory, while drawing on Andrew Nathan's authoritarian resilience framework to account for China's office-charisma trajectory. Although both party-building lines share a common structure — political, ideological, organizational,

disciplinary, and work-style construction — and both aim to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 supreme leader and advance socialist modernization, they diverge fundamentally: China emphasizes institutionalization, rule of law, and anti-corruption as pillars of the party's 'self-revolution', whereas North Korea subordinates institution-building and anti-corruption to ideological control aimed at reinforcing loyalty to the Supreme Leader. The findings suggest that North Korea has formally adopted Chinese party-building theory while substantively adapting it to consolidate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nd that this shared vocabulary may serve as a diplomatic rationale for deepening party-to-party ties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without implying full subordination.

Keywords: North Korea, Kim Jong-un, Xi Jinping, new era five-point party building line, comprehensive and strict governance over the party for a new era